

傷寒 六經病論中 少陰經病의 病態와 少陰人 體質에 對한 病理的 比較研究

李 碩 衡* · 洪 淳 用*

I. 緒 論

「內經 素問」에 三陽·三陰病證을 三段階로 分類하여 進行됨을 말한 바 있어 傷寒論에서도 이에 準據하여 說明하였다.^{1,2,3,4)} 三陽病이 오래 持續되면 陰病으로 轉經되며 또 誤治를 하여 病者의 氣力이 衰盡해 졌을 때에 陰病으로 轉變되는 경우도 있다.⁴⁾

少陰病은 처음 太陽病에서 移行되며⁴⁾ 極에 이르면 脈微細하고 但欲寐하며 口燥·心煩而自利하고 渴症이 심하여 引欲自救하고자 한다.^{2,3,4,5)} 이는 完全히 脫陰의 상태가 된 것이다. 六經病中에서 李^{5,6)} 는 특히, 三陰病은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主證은 泄瀉나 太陰病 泄瀉는 溫氣가 冷氣를 물리치는 泄瀉로 重證이긴 해도 例事로운 病證이요. 少陰病 泄瀉는 冷氣가 溫氣를 逼迫하는 泄瀉이므로 危證이며 險證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한 病理를 體質에 結付하고 治療에 臨한 것이 四象醫學의 特徵이다.

이에 著者는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되어 있는 張仲景의 六經病論에서 特히 少陰人 少陰病에 대하여 治療大綱을 拔萃·研究할 것이다.

II. 研究資料 및 方法

1. 資 料

傷寒論에 대한 古典과^{1,2,9)} 最近에 刊行된 傷寒論에 關係되는 醫書^{2,3,8,10)} 및 補充資料를 取하였다.

2. 研究方法

「東醫壽世保元」중에 收錄되어 있는 張仲景 傷寒論의 引用句節을 拔萃하여 四象體質에 結付시켜 病理와 治療大綱을 分類하였다.

III. 研究內容

1. 三陰病論

傷寒 六經病論에는 三陽·三陰으로 分類하고 陽證에는 太陽·陽明·少陽이라 하였고 陰證에는 太陰·少陰·厥陰이라 하였다.^{1,2,3,8,9,10,14)} 六經病中에 三陰病은 모두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少陽病은 少陽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太陽·陽明病은 少陰人·少陽人·太陰人에게 모두 있으나 이중에서 少陰人에게 가장 많다고 하였다.^{5,6,14)}

張仲景 傷寒論에 腹滿時痛하고 口不燥·心不煩하며 自利者를 謂之 太陰病이라 하고, 脈微細·但欲寐하며 口燥·心煩而 自利者를 謂之 少陰病이라 하며, 初無腹痛하고 下利等證而 傷寒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6,7일에 脈이 微緩하고 手足이 厥冷하며 舌卷·囊縮을 謂之 厥陰病이라 하였다.^{2,3,8,9,10,14)}

李는 少陰人 泛論에 泄瀉를 하되 燥渴證이 없으면 太陰病이요. 泄瀉를 하며 燥渴이 있으면 少陰病이다. 太陰病과 少陰病의 泄瀉는 같아도 燥渴이 있고 없는 相距는 멀고 멀어서 冷氣가 聚散하고, 輕하고 重한 것은 마치 雲夢과 瀟澤에 比喻할 수 있다고 하였다.^{5,6,7,12,13)} 그러므로 少陰人의 天稟를 타고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陽明病과 少陰病의 危急함을 알아서 平素에 攝生과 調理를 疎忽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5,6)}

太陰病과 少陰病이 다른 것은 泄瀉하는 것은 같아도, 太陰病 泄瀉는 溫氣가 冷氣를 쫓아내는 泄瀉요. 少陰病 泄瀉는 冷氣가 溫氣를 逼迫하는 泄瀉인 것이다.^{5,6,7,12,13)}

少陰人에게 六大病證이 있으니 ① 少陰病 ② 陽明病 ③ 太陰病 陰毒證 ④ 太陽病 厥陰證 ⑤ 太陽病 黃疸證 ⑥ 太陽病 胃家實이라 하였다.^{5,7)}

2. 少陰病의 病態

食滯가 있을 때에 泄瀉를 하면 食體가 뜰려야 할 텐데 病이 풀리지 않으면 少陰病이다.^{5,6,7,13)} 太陰病은 6,7일이 지나서야 危證이 되지만 少陰病은 처음부터 重證이며 3,4일이 지나면 반드시 險證이 된다. 太陰病은 病勢가 緩慢하며 서서히 進行하므로 여러날을 끌다가 變證이 되지만 少陰病은 처음부터 病이 急하고 오래 끌지 않으므로 變證이 적다. 太陰病이 裡寒證이라고 한다면 少陰病은 表裡가 함께 寒冷한 것이다.^{5,6,7)}

傷寒論에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라 하여, 즉 氣力이 衰盡하여 起動하기가 싫고 항상 누워 있고자 한다. 脈이 微細하고 惡寒證이 있으

며 表寒이 兼하면 頭痛·身體痛이 있고 手足이 차며 裡寒이甚한 때에는 腹痛·泄瀉가 極甚하다.^{2,3,8,10)}

3. 少陰病의 文獻의 考察

(1) 張仲景曰 少陰人 脈微細 但欲寐^{2,3,8)}

(2)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5,6日自利而渴者 屬少陰 小便色白 宜四逆湯^{2,3,8)}

(3) 少陰病 身體痛·手足寒 骨節痛 脈沈者 附子湯主之^{2,3,8)}

(4) 下利腹脹滿 身體疼痛 先溫其裡 乃攻其表 溫裡宜血逐湯 攻表 宜桂枝湯^{2,3,8)}

(5) 張中景曰 少陰之爲病 始得之 反發熱 脈沈者 麻黃附子細辛湯主之^{2,3,8)}

(6) 少陰病 一二日 口中和 背惡寒 宜附子湯^{2,3,8)}

(7) 少陰病 二三日 用麻黃附子甘草湯 微發之以二三日無證故 微發汗也 無證 謂無吐利厥證也^{2,3,8)}

(8) 下利 脈沈而遲 其人 面小赤 身有微汗 下利清穀 必鬱冒汗出而解 病人 必微厥所以然者 其面戴陽下虛故也^{2,3,8)}

(9) 少陰病 脈細沈數 病爲在裡 不可發汗 少陰病 但厥無汗而強發之 必動其血 或從目出 是爲下厥上渴 難治^{2,3,8)}

(10) 朱肱曰 少陽人 口燥咽乾而渴 先急下之 非若陽明 宜下而可緩也^{5,6,7)}

(11) 李杲東垣書曰 少陰證 口中辨 口中和者 當溫 口中乾燥者 當下, 少陰證 下利辨 色不青者 當溫 色青者 當下

(12) 李梴曰 舌乾口燥 或下利清水 譫語便閉 宜小承氣湯 唇青四肢厥冷 指甲青黑 宜薑附湯

(13) 李梴曰 少陰病 厥而吐利 發燥者 亦不治而 三味蓼萸湯 救之^{5,6,7,8)}

4. 四象醫學의 批判

(1) 李^{5,6,7,12}는 張仲景論中 少陰病을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少陰人之 內傷病 一切를 脾胃臟이 寒氣를 받아 생기는 胃受寒裡寒病이라 하고, 張仲景이 말한바 三陰病은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으로 다같이 胃氣가 虛冷하여 水分을 吸收하지 못하여 泄瀉를 하는 것이라 하였다. 三陰病中에 太陰病 泄瀉는 重證이기는 해도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少陰病은 처음부터 危證이요 險證이 되는 것이다. 或, 泄瀉만을 보고 같은 證勢로 생각하기 쉬우나 少陰病을 例事로 생각했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5,6} 太陰病 泄瀉는 大腸에서 생기는 泄瀉며 太陰病 泄瀉는 溫氣가 冷氣를 쫓아내는 泄瀉요, 少陰病 泄瀉는 冷氣가 溫氣를 逼迫하는 泄瀉다.^{5,6,7} 陰病이 스스로 낮고자 할 때에는 얼굴빛이 붉어지고 약간 땀이 나며 眩氣가 있다 없다 하다가 病이 풀린다.^{5,6,7} 옛 사람들이 少陰病에 단지 厥하고 땀기가 없으므로 약간 發汗을 시키고자 麻黃劑를 써 왔으나, 血을 자극하여 입과 코 또는 눈에서 出血이 되는수가 있으므로 麻黃 쓰기를 근신해 왔다. 여기에는 마땅히 官桂附子理中湯을 쓴다.^{5,7} 少陰病은 처음부터 危證이므로 病證을 잘 把握하여 빨리 措置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배가 아프고 泄瀉를 하되 燥渴이 없으면 太陰病이요. 腹痛·泄瀉를 하고 口渴이 있으며 燥澁하면 少陰病이다. 身體痛·骨節痛은 邪氣가 表裡에 함께犯한 것이니 이는 腸의 寒氣가 胃의 溫氣를 뚫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요. 太陰病에서는 身體痛·骨節痛이 없으니 胃의 溫氣가 大腸의 寒氣를 이기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5,7}

(2) 李梴이 말한 少陰病에 四肢가 厥冷하고 吐하고 瀉하며 燥證이 있으면 三味 蓼黃湯을 써 보라 하였는데, 여기에 말한 燥證이란 少陰人之 藏厥證에 있는 證勢로 李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少陰人은 본래 喜好가 不定하여 계책에 궁하고 힘이 적일 때에 煩燥證이 생긴다. 少陰病에 欲吐不吐하고 心煩하고 但欲寐하는 者는 이미 計窮力屈한 것이다. 대개 喜好가 不定하면 慾心때문이니 이로써 少陰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君子와 같이 너그럽고 平安한 마음을 갖어야 한다. 비록 傷寒 初證에 欲吐不吐하고 心煩하며 但欲寐하는 者라도 藥을 쓰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躁無暫定而厥者라도 蓼黃湯·四逆湯·官桂附子理中湯·吳茱萸附子理中湯을 쓴다.^{5,7,9}

(3) 少陰人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달에 두세번 泄瀉를 하면 尋常히 보아서는 안되며, 하루에 굳은 大便을 3,4 차례 보아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하루에 泄瀉를 3,4 차례 하면 重하고, 口燥·心煩하면 脫水證이 생긴 것이니 가급적 官桂附子理中湯·吳茱萸附子理中湯을 쓴다.^{5,7}

IV. 考 察

六經病의 轉變은 반드시 素問 熱論에 있는 順序대로 進行되는 것이 아니라, 治療에 따라 太陽病에서 少陽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陽明病으로 轉變되기도 하고, 太陽病에 誤治를 하여 少陰病(直中)이 되며 少陽病에서 太陰 또는 少陰·厥陰病으로 轉變되기도 한다고 하였다.^{2,3,8}

傷寒論에 「太陰之爲病 若下之 必胸下結硬」이라 하였으니, 이는 胃腸이 虛弱하여 gas가 發生하여 虛滿한 것을 陽明腑實로 誤認하고, 下劑를 쓰면 下利不止하여 下焦가 虛冷해 저서 體熱이 心臟으로 集結되어 心下가 結硬된 것이니, 이를 少陰病이라 하며 이른바 「發病於陰 反爲下之 因作痞」라 한것이 이런 뜻이다.^{2,3,8}

李蕤은 「三陰病이 깊어지면 반드시 陰毒證으로 變하는데, 手足이 厥冷하고 吐하고 瀉하며 渴證은 없고 웅크리고 누워 있기를 좋아하며, 심하면 咽痛·鄭聲하고 頭痛이 있으며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 또 眼睛이 內痛하고 불빛을 싫어하며 입술과 顔面·爪甲이 검고 푸르다. 온몸이 쭈시고 아프며 四肢가 厥冷하다」^{5,7,9)} 고 하였으니 張仲景이 「少陰之爲病 脈微細但欲寐」²⁾ 라고 한 뜻과 같다. 이미 氣力이 衰盡하여 起動하기 어렵고 惡寒氣가 있으며, 身體痛·四肢厥冷·腹痛·心煩·下利·小便이 自利하고 清白하다.^{2,3,8)}

여기서 말한 三陰病이란 確實히 少陰人에게 있는 特徵적인 病證임을 알 수 있고 이는 表裡가 다 함께 寒氣에 傷한 것이다.

李^{5,6,7)} 는 太陰病과 少陰病의 證候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泄瀉를 하되 燥渴이 없으면 太陰病이요, 泄瀉를 하되 燥渴이 있으면 少陰病이다. 太陰病과 少陰病이 泄瀉는 같아도 燥渴이 있고 없는 차이는 멀고 멀어서 冷氣가 聚散하고, 輕重은 마치 雲夢과 瀦澤에 比喻할 수 있다고 하였다. 少陰病은 泄瀉를 심히 하여 脫水證이 된 것이니 燥渴證이 심하여 수없이 물을 찾아도 마시는 즉시로 瀉下하며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微細하다. 만일 少陰病에 表證이 있으면 身體痛·骨節痛이 있으며, 이는 大腸의 寒氣가 胃의 熱氣를 滯고 上昇하기 때문이요. 表證이 없으면 胃의 熱氣가 大腸의 寒氣를 이기고 下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少陰病이 낫고자 할 때에는 人中에서 땀이 나면 危險을 免할 수 있고, 食滯가 스스로 墜리면 다음으로 위험을 면하게 되며 自然히 吐하는 者는 快免이라고 하였다.¹⁴⁾

이와 같이 三陰病의 病理를 分類하였고, 또한 少陰病의 特有의 病證임을 말하였으며 이에 治

法에 대해서도 明示하였다. 이것이 四象醫學의 特殊性이라 하겠다. 少陰病 陰毒證에는 반드시 吳茱萸附子湯·官桂附子理中湯을 쓰되 人蔘·附子를 隨證加減해야 한다고 하였다.^{5,7,12)}

V. 結 論

傷寒 六經病論中 少陰經病의 病態와 少陰人體質에 대한 病理的 比較研究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六經病論中 三陰病은 四象醫學的으로 少陰人에게만 있는 特有의 病證이며 表裡가 모두 寒氣에 傷한 것이다.
2. 少陰病과 太陰病의 泄瀉는 같은 病理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燥渴의 證狀이 있고 없음에 따라 반드시 分類하여 판단하고 治療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楊維傑編：黃帝內經譯解，樂群出版，pp.244 ~ 247, 1976.
2. 蔡仁植：傷寒論譯詮，高文社，pp.202 ~ 231, 1971.
3. 戴新民：傷寒論釋義，啓業書局，pp.3 ~ 6, pp.162 ~ 168, 1981.
4. 長濱善夫：東洋醫學概說，東洋綜合通信，pp.132 ~ 133, 1971.
5.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杏林出版，pp.186 ~ 217, 1985.
6.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 誠理會出版社，pp.145 ~ 157, 1978.

7. 朴奭彥：東醫四象大典，醫道韓國社，
pp.144 ~ 155, 1977.
8. 張仲景：新校註解傷寒論，凡潮社， pp.311
~ 337, 1962.
9. 李 挺：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大星文
化社， p.25 ~ 28, 1981.
10. 大塚敬節：傷寒論解說，東洋綜合通信，
pp.407 ~ 443, 1971.
11. 朴盛洙·廉泰煥：現代漢方講座，大韓韓方醫
學會， p.36, 1971.
12. 李泰浩：東醫四象診療의 秘訣，杏林書院，
pp.38 ~ 47, 1970.
13. 尹吉榮：四象體質醫學論，明寶出版社，
pp.209 ~ 212, 1973.
14. 洪淳用：傷寒六經病態의 四象醫學的 認識，
韓醫學會誌， pp.65 ~ 74, 1985.